

## 외과적 정출술 : 수술적 방법과 장기적 예후

김 창 성 /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임상 치관 연장술을 위한 외과적 수술 방법이 많이 소개되었지만 각 방법들은 기능과 심미적 결과를 위한 수술적 방법에서 임상적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제에서 소개하는 외과적 정출술은 임상 치관 연장술의 새로운 방법으로, 본 연자가 2004년에 발표한 임상 증례 논문(Int J Periodontics Restorative Dent 2004;24:412)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 당시 논문에 발표하였던 임상 증례들의 장기 결과를 추적 관찰하여 그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치료의 유효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3명의 환자 증례에서 특별히 제작된 기구(Periotome)을 이용하여 무손상 외과적 정출술을 시행하였다. 치은 판막을 최소로 거상하고 해당되는 치근을 탈구시키고 원하는 위치까지 정출시켰다. 탈구 및 정출과정에서 치근면의 외과적 손상은 없었다. 또한 치근은 발치와 내에서만 조작되었으므로 치근면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았다. 봉합사로만 정출된 치근을 고정하였고 일반적인 수술후 처치를 시행하였으며 치유 후 봉합사를 제거하였다. 3명의 환자 모두 7년 이상 정기적 내원하여 유지 관리 치료를 받았다. 최종 검사한 임상적 결과로서 해당 치아의 모든 면에서 3mm이하의 탐침 깊이가 측정되었고 병적 동요도 없이 정상적 기능을 하고 있었으며 어떠한 염증 소견도 볼 수 없었다. 치은 변연부의 심미적 결과 역시 장기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으며 방사선적 소견에서 변연골의 형태와 양이 양호하게 유지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치근의 치근면 흡수 또는 골 유착의 소견 역시 볼 수 없었다. 따라서 외과적 정출술은 안전하고 간단하게 시행될 수 있으며 장기적 기능과 심미적 결과를 보장하는 치관 연장술의 방법으로 적극 추천될 수 있다.

### 학력 및 경력

- \*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 교실 인턴 및 레지던트
  - \*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 교실 조교수
  - \* Center for Oromaxillofacial Molecular Biology,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 Visiting Professor
- \*현,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교수